

## ‘A스러운 것들’의 외발 출현

김정현(미술비평가)

### \* 잘 아는 자연현상, 드로잉으로 탐색하기

**작업실 상황 - 여름끝 가을시작:** 선풍기는 돌아가고, 아이스커피가 담긴 플라스틱 잔에는 이슬방울들이 맺히고, 양은통에 담긴 접시 분수대에서는 물소리가 줄줄 흐른다. 여름의 끝물을 알리는 잘 아는 자연현상들이 작가의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중이다. 선풍기 없이도 선선한 바람이 제쳐놓은 창문 사이로 가끔 들어오고, 얼음과 접촉한 더운 공기는 천천히 물방울을 만들기 시작하고, 물소리는 시원함과 선선함 사이에서 오락가락 파장을 일으킨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작업실 풍경 - 공간 장악:** 작가는 작업 재료나 도구, 마무리 지었거나 진행 중인 작품들, 책상이나 집기 등의 공간 배열에 유독 관심이 많다. 망치로 두드리고 드릴로 박아대는 작업 공정에 소음공해라는 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문래동 철공소 지역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투박한 작업 과정을 위해 나름의 공간 질서를 확보한다. 작업 먼지와 재료 더미들이 혼재하는 곳인데, 그마저도 각자의 위치에서 시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이유는 작가의 공간에 대한 장악력 때문이다. 사물의 위치가 마음에 들 때까지 힘쓰고 힘써 애착 가는 공간으로 전치시킨다.

**비공상적 드로잉 탐색:** 작가는 초-현실적인 공상(空想)을 작업 주제로 삼지 않는다. 그녀는 주변의 물질과 그 물질들이 부딪히며 빚어내는 실제적인 자연현상을 작업에 끌어들인다. 밀크카라멜을 손으로 주물러 끈에 달아놓기, 씹은 껌 30개를 붙여 만든 끈으로 식물을 지탱하기, 낡은 선풍기 4대를 일렬로 세워 바람을 한곳에 모으기, 사각의 방안에 외발로 선 채 두 팔과 한 발을 수평직각으로 뻗어 벽에 고정시키기, 사지를 상하로 쭉 뻗고 매트리스에 떨어져 자국 남기기, 가슴기를 틀어 유리 상자에 물방울 맺기. 더러 공상적인 주제도 있다. 식물에 붉은 물을 주어 물들이기.

**평면 드로잉에서 입체 설치로:** 벽과 벽의 사이 공간에 설치한 카라멜 덩어리 선에서 카라멜은 곧 떨어져 나갔고, 점성이 떨어져 굳어버린 껌도 몇 시간을 못 버티고 끊어졌다. 회전기능을 반납한 4대의 선풍기는 측량사의 기계 눈처럼 한 곳의 소실점을 응시하는 위치를 부여받은 탓에 4대의 동력으로 1대의 바람 효과를 생산해냈다. 외발로 선 채 사지를 뻗어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1차 퍼포먼스는 야외 정자에서 공중 부양하는 실험으로 대체되었다. 가슴기로 유리 표면에 물방울 만들기는 비정형의 유리 얼굴을 유리 상자에 안치하고 습도장치를 설치해 지속적인 물방울을 맺히게 하는 진척된 방식으로 용이한 성공을 거두었다.

**드로잉의 퍼포먼스 실현 가능성:** 작가의 작업 기억을 추적해보자. 일명 ‘외발’ 드로잉은 퍼포먼스로 실행되었다. 어느 맑은 날, 정자 지붕 밑의 두 기둥 위에 흰 천을 걸고 고리를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 외발로 무게 중심을 잡고 양팔 벌린 자세에 도전하는 첫 번째 퍼포먼스를 실행했다. 그 결과는 뒤숭숭했다. 무게를 가진 신체가 중력을 거슬러 끈 위에 올라서는 것은 드로잉에서 구상한 바닥에 외발로 서는 것보다 훨씬 고강도 연습이 필요했다. 민속촌의 외줄타

기 인간문화재를 불러야 할 것 같았다. 공중 부양의 지탱을 대체하는 드로잉이 마련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L' Uomo Vitruviano)>, 일명 '황금비율 사나이'가 사지를 벌리면 딱 들어맞게 안성맞춤으로 설계된 사각 드로잉 공간을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방이나 공간을 고르고, 주변의 사물들을 팔다리에 기계적으로 연결시켜 신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을 구상했다. 좋아하는 식물을 등 위에 올리고, 풍선을 붙여 연결하고, 주방용 크리넥스를 부착하고, 여름용 돛자리를 돌돌 말아 발바닥으로 밀면, 신체의 힘은 연결된 오브제들을 통해 벽으로 전달될 것이다. 외발이 바닥의 중력과 밀착되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이번 외발 드로잉의 두 번째 퍼포먼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 \* 유리 외발 플라밍고, 무게 없는 공간 장악하기

**조립 분수의 물소리 파동:** 2015년 《A스러운 것들(Things Resembling A)》은 '외발의 공간 장악' 재주를 주제로 한다. 잘 아는 자연현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드로잉 탐색 과정은 이번 전시에서도 연이어 소개되었다. 가변적인 물리적 현상을 보여주는 설치 작업으로는 <1+1+1+1=1>(2014)의 선풍기 바람 대신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분수가 등장했다. 이 분수 작품은 집에 있던 일상의 접시와 유리잔을 가져다 중앙에 쇠막대를 꽂고 양은통에 세워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설계되었다. 일부러가 아니라면 전시장에 환영받지 못하는 잡음, 말하자면 한갓 저급한 외부에 지나지 않는 물소리를 작가는 중요한 모티브로 포섭했다. 수평적 몫을 부여받은 물소리가 공기의 파동을 따라 전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A스러운 것들의 출현:** A 자리에 초대할 글자들을 떠올려 본다. 성(聖, 性)과 상(商, 像). 성스럽고 상스러운 것들은 오래된 잔상을 가진 어휘들이다. 우와! 에이! 어와 아의 한끝 차이가 고급과 저급을 오간다. 성적 이미지리와 조형적 이미지는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의 산물이다. 현대 예술은 성적 코드와 형상의 변주를 강력하게 불러낸다. 작가는 A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범주에서 A 자리의 익명성에 주목한다. 무엇이든 거주할 수 있는 A 자리는 그래서 공백이자 만석이 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A의 익명성을 외다리로 가볍게 서는 플라밍고의 자연친화적 능력에서 찾고 있다.

**외발 플라밍고 눈독들이기:** 붉은 색을 띠는 플라밍고는 흥학으로도 불린다. 가늘고 길게 뻗은 다리와 목은 땅과 하늘의 무게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체다. 외발 퍼포먼스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작가는 중력의 무게로부터 해방되는 다른 생명체의 능력을 동경한다. 외발로 서는 신체 행위의 불안정성을 그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진화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플라밍고는 차가운 물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이다. 물속에 발을 담그고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발목에 'wonder net'이란 특수혈관계를 가지고 있다. 발끝으로부터 차가워져 몸으로 돌아오는 정맥피가 이곳에서 더운 동맥피에 의해 데워져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체의 온도는 40도로 유지되고 다리 온도가 차가워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다리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인간처럼 눕지 않는 새들에게 외발 서기는 아주 적절한 피로 회복 방법이었을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외발 플라밍고의 이미지에 눈독들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외발 서기가 인간에게는 도전하고픈 묘기이자 능력이다.

**가볍고도 불안한 플라밍고의 공간 장악:** 체온 유지를 위해 길게 뻗을 수 있는 목을 수시로 몸체에 파묻는 플라밍고의 자세에서 작가는 익명성을 불러낸다.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플라밍고는 중력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위태로운 수많은 익명의 인간들과 중첩된다. 새가 아닌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 외발 서기는 불안함의 공포를 은연중에 내보낸다. 생태계에 적응하며 외발 서기의 달인이 된 새들은 누워 잠을 청하는 인간에게 여전히 타자일 뿐이다. 유리로 블로잉해 만든 새의 몸체는 투명성과 파괴성을 탑재한 자극 유발체다. 청동으로 제작된 가는 외다리 위에 올린 유리 몸체는 투명성에 의해 아무 것도 아닌 공백의 자리로 상징화되지만, 한편으로는 깨지기 쉬운 파괴적인 욕망의 집결체가 된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사물 배열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에너지에 집중하는 작가의 이색적 취향은 유리 외발 플라밍고들이 공근혜 갤러리 내부에 놓이는 설치과정에서도 발산된다. 가볍고도 불안한 유리 외발 플라밍고가 시멘트 바닥의 중력에 저항하거나 동시에 안착하기 때문이다. A스러운 것들이 물 소리를 타고 높거나 낮게 진동하는 장악된 공간이 여기에 있다.